

구윤철 부총리, 폴란드 재무장관과 면담

-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·공급망 영향 및 대응 경험 공유
- 방산 협력 지속, KSP 디지털·AI 협력 확대, G20 경제성장·글로벌 불균형 의제 공조 방향 등 논의

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.13일(월)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제이 도만스키(Andrzej Domański) 폴란드 재무장관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·공급망 영향과 양국 핵심 협력 의제를 논의하였다.

이번 만남은 한-폴란드 정상회의 계기 폴란드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,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양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.

구 부총리는 폴란드가 방산·이차전지 등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 교역·투자는 물론 국방·공급망·첨단산업까지 협력 영역을 넓혀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, 이번 면담이 양국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

구 부총리는 현 상황을 '경제 전시상황'으로 규정하고, 유류세 인하·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시행, 정책금융 6.5조원 추가 확대(20.3→26.8조원), 26조원 규모 전쟁추경의 조속한 집행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소개하고,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 중임을 밝혔다.

도만스키 장관은 2022년 미국·카타르산 LNG 도입 확대와 발틱 파이프라인 조기 가동 등 폴란드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경험*을 공유하였고, 양측은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.

* 2022년 4월 러시아의 루블화 결제 요구를 거부한 이후 가스 공급이 전면 중단

한편, 양측은 KSP*를 통한 한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 현황과 향후 협력 방향도 논의하였다. 2022년 이후 2건의 KSP를 통해 폴란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전략에 한국의 정책 경험을 반영해 온 데 이어, 2026년 하반기에는 AI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 자문도 추진하여 양국 간 장기협력의 토대를 넓혀 나가기로 하였다.

* KSP(Knowledge Sharing program): 한국의 경제·사회 발전 경험과 지식을 국제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경제·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

또한, 양측은 한-폴란드 방산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 구 부총리는 K2 전차·K9 자주포·천무 등 231억불 규모의 방산 협력이 양국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져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, 양국 기업이 호혜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방산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

아울러, 구 부총리는 폴란드가 올해 G20에 초청된 것을 축하하고, GDP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20위권 경제로 성장한 폴란드가 G20 논의에서 회원국과 역외 국가 간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. 또한 경제성장·글로벌 불균형 등 주요 의제에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.

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-폴란드 경제대화를 개최하여 양국 간 실질적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.

담당 부서	대외경제국 신통상분석과	책임자	과 장 강승민 (044-215-7650)
		담당자	사무관 강동근 (kdk212@korea.kr)
			사무관 황예진 (yejin1210@korea.kr)
			사무관 정우성 (worldsurf@korea.kr)
			주무관 김유진 (buyu21@korea.kr)